



**대운산의 여름**      광주일보와 (주)밀레가 공동 주최한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한국명산 16좌 산행'에 참가한 등산객들이 지난 21일 충남 논산시 대운산도립공원 수락폭포를 지나며 땀방울을 식히고 있다. 최근 장마로 수량이 불어난 수락계곡은 폭포와 시원한 바람으로 한여름에도 차갑게 느껴질 정도다. ▶관련기사 11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선 5기 3년 결산

1분권 읽는 자치

# 복지예산 급증에 현안 줄줄이 중단

## 수도권 규제완화·신규 SOC 배제... "新중양집권체제 강화"

민선 5기 3년 동안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이명박(MB)정권이 만들어낸 '호남 흉대'라는 괴물과 맞서야 했다. MB정부의 지역 대선공약 26건 중 완료된 사업이 4대강 사업인 '영산강 살리기'가 유일할 정도로 광주·전남지역은 흉대를 받았다. <관련기사 3면>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대통령과 대담권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흉대론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사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으며, 낙후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규 SOC(도로·철도 등) 사업도 위축됐다. 특히 민선 5기내내 추진해

온 대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강화'라는 벽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다. 반면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는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재추진될 조짐이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예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민선 3기 3년간 공들여온 신규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 디지털콘텐츠사업 클러스터 조성(1758억원) 등 4개 사업(총 사업비 9636억원)이 예타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에서 도로 고속화가 끝났던 전

남은 보성~고흥간 국도 확장 등 9건의 도로공사와 목포~군산 등 철도 3건 등 12건의 예타를 건의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신규 SOC사업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 성장동력 사업인 미래형 차고산업 벨트 육성에 산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사업, 광산업과 연계한 스마트센서 산업, 물 연구소 설립 용역비 등도 올해 정부 예산에서 배제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역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광주·전남을 더욱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모든 복지사업에서 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올해부터 0~5세 영유아 무상보육비에 가장 양육수당 등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예산 432억원을, 전남도는 181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올해 '무상 보육비 폭탄'에 이어 내년에는 '기초연금 폭탄'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8429억원으로 전체 예산(2조 7800억원)의 30.32%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은태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정과 권한을 권 중앙정부의 독주행태는 매우 위험한 수위로, 사실상 신 중양집권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두환 추징법, 5·18관련법, 영유아보육법...

# 6월국회 처리도 먹구름

## 여야 '국정원·NLL 정쟁'에 민생법안 '매몰'

6월 임시국회가 23일로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취지 발언' 논란 등 대형 쟁점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5·18 관련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종료돼 시간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가 격렬한 '전쟁터'로 변한 상황이라서 관심 법안의 처리가 물 건너 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른바 '임을 위한 행진곡법', '5·18 왜곡 금지법', '박관현법'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이 모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두환 추징법'마저 새누리당이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번 주에도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안도 추가 논의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사법위가 격렬한 '전쟁터'로 변한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쟁쟁한 '유턴'을 맞았다.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지난주 여야간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일정상 이번주 초

상임위법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서 "이 경우 통상 비(非)회기인 7~8월 이후인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역사 왜곡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공개 등 정국이 점입가경 상태에서 '전두환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전두환 법'은 완성도가 높은 법으로, 이 법이 연좌제 적용, 소급입법, 과잉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세계수산대학 유치 '뒷북대응'

### 부산 설립 유력...뒤늦게 유치활동 나서 '비난'

정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수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발표했지만 '국내 수산 1번지'인 전남도의 단일한 대처로 사실상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정부 발표 이전에 대학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관련 용역도 끝마쳤는데 전남은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FAO와 함께 개발도상국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수산 관련 연구를 진

행하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오는 9월에 설립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학은 부산시가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부산 유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관련 용역과 학교 부지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부산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억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교 한 뒤 운영비(30억~40억원)를 지원해 주고, 6개 과를 개설해 세계 각국의 신입생(20~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가 "땅과 건물을 줄 테니 대학을 설립하자"는 부산시의 계획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부산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이 대학을 유치했을 때 10년간 생산유발 효과는 5307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388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시가 수 개월전 부터 체계적으로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건의한 것

과는 달리, 국내 수산 생산의 43%를 차지하는 전남도는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 지난 19일 정부가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발표한 뒤에야 "대학 유치에 나서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유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유치 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6월 24일(월)~28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2013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행정학과(공공행정전공, 사회행정전공)  
○ 모집인원: 00명 (광주반, 여수반, 남양반)  
○ 전형방법: 면접고사  
○ 원서접수: 2013. 6.17(월) ~ 7.2(화)  
○ 문의: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 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물라가 조영인자를 폭발적으로 켜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물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인식하는 헤라만의 알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 백기 등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유아몰안산염

www.hera.co.kr